

Implant System을 이용한 전치부 즉시식립 즉시기능의 10년간 추적결과 연구

이손치과병원

이창규

전통적인 브레네막 임플란트 시스템의 추천 프로토콜은 1차 수술인 임플란트 식립과 3-6개월 후에 진행되는 2차 수술과 보철이 연결되는 전통적인 2회법이다.

1970년대부터 즉시 기능은 시도되었으나 우리가 주저하는 요소는 첫번째가 조기 또는 즉시 기능시 골융합 실패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에 대한 요소이며 이는 임플란트-골 계면에 기능적 힘이 가해짐으로 인해 계면에서 골세포의 재생보다 섬유조직이 게재되면서 발생하는 골융합실패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치과의사인 우리의 숙제는 환자에게 저작기능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하게 하여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고 치유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유기간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SIC 임플란트'를 전치부에 즉시식립과 동시에 즉시로 임시치아를 연결하고, 즉시로 저작 기능이 가능하도록 교합을 설정한 후, 10년 동안 경과를 관찰하고 평가한 결과 보고서이다.

SIC 임플란트는 0도의 육각구조(hexagon)를 콜드웰딩 방식으로 결합하므로 스크류 힘을 강하게 조이지 않아도 스크류가 풀릴 가능성이 매우 적고, 차세대 제품인 SIC 밴티지의 경우에는 1.4도의 테이퍼드 보철 커넥션으로 인해 특히 제작된 별도의 제거 툴이 필요할 정도로 스크류 풀림 방지에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식립면에서는 절삭력이 높은 향상된 드릴을 보유하여 골질을 최소로 삭제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최대화된 초기고정을 통해 기능적 교합을 가능케 하는, 임플란트의 즉시식립과 즉시기능에 탁월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